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7. 4. 28(금)	
		작 성 문 의	국정운영실 행정관리과 과장 고관규 / 사무관 박종대 (Tel. 044-200-2094)
* 엠바고 : 4.28(금) 13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			

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,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

- 황 권한대행, 서해수호전사자 유가족 및 참전전우 초청, 위로
- 호국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만반의 대비태세 구축할 것
-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, 국민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할 것

< 주요내용 >
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.28(금),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(21명)과 참전전우(6명)를 서울총리공관으로 초청, 오찬을 함께 하며 위로
-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우리 바다를 지켜낸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
- 정부는 호국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게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,
 -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- 북한의 거듭된 도발책동과 관련,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,
 - 참석자들에게 호국영웅의 가족이자 전우라는 큰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이 더욱 굳건한 안보의식을 가지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

-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 28일(금) 12시, 서해수호* 전사자 유가족(21명)과 참전전우(6명)를 서울총리공관으로 초청, 오찬을 함께 하며 위로하였다.

* 제2연평해전('02.6.29), 천안함 피격('10.3.26), 연평도 포격도발('10.11.23) 사건

- 지난달 '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'을 마치고, 감사와 위로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,

-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 유가족뿐 아니라, 그들과 생사를 같이 했던 참수리 357호 장병들,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부대 장병들도 함께 자리했다.

-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무도하게 자행한 제2연평해전, 천안함 피격,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전사 장병 유가족과 참전전우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,

-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우리 바다를 지켜낸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

- 또한 정부는 호국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이 없게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,

-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,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

- 북한의 거듭된 도발채동과 관련,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

- 참석자들에게 호국영웅의 가족이자 전우라는 큰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더욱 굳건한 안보의식을 가지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(붙임) 1. 서해수호의 날 근거법령 및 추진경과
2. 서해수호 3개 사건 사건별 개요

□ 근거법령

-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7039호)
 각종 기념일(제2조제1항 관련)

번호	기념일	날짜	주관부처	행 사 내 용
4	서해수호의 날	3월 넷째 금요일	국가보훈처	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,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,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.

□ 추진경과

- 2013. 6.14 북한도발 관련 정부행사 추진(안)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
 - 현 안보상황 고려 및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서해수호 관련 정부행사 통합 추진
 - * 제2연평해전('12년 10주기 행사 후 정부행사 종료), 천안함·연평도 포격도발('15년 5주기 행사 후 정부행사 종료)
- 2016. 1.28 「서해수호의 날」 기념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
 - 명칭(서해수호의 날), 장소(국립대전현충원), 날짜(3월 넷째 금요일)
- 2016. 3.22 「서해수호의 날」 법정기념일 지정
 -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
- 2016. 3.25 ‘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(대통령 주관)
 - 유족 및 참전전우, 학생·시민·장병 등 7천여명
- 2017. 3.24 ‘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(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관)
 - 유족 및 참전전우, 학생·시민·장병 등 7천여명
 - ※ 지방 기념식 157건, 5만2천명, 걷기대회·사진전·문예행사 등 계기행사 2,984건, 154만여명, TV시청 350만명, 유튜브 등 SNS 19만7천명 등 총 550여만명

□ 제2연평해전

○ 추진배경

-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군 주관으로 '서해교전 추모식' 거행
-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기념행사로 거행

· 국가수호 임무 중 발생한 전사자에 걸맞는 추모와 명예선양,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 및 NLL 사수의 승전 개념으로 추진

※ 2012.6.29. 정부주관 5회 후 정부행사 종료,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로 통합

○ 추진경과

일 자	내 용	주 관	비 고(주빈)
2003. 6. 29	○ 제1주기 전사자 추모식	해군본부	
2004. 6. 29	○ 제2주기 전사자 추모식	2함대사령부	
2005. 6. 29	○ 제3주기 전사자 추모식	2함대사령부	해상 위령제 거행
2006. 6. 29	○ 제4주기 전사자 추모식	2함대사령부	
2007. 6. 29	○ 제5주기 전사자 추모식	2함대사령부	국무총리 참석
2008. 1. 7	○ 서해교전 추모행사를 정부기념행사로 격상추진		대통령업무보고(3.29)
2008. 4. 8	○ 「서해교전」을 「제2연평해전」으로 명칭 변경		국방부 발표
2008. 6. 29	○ 제2연평해전 6주년 기념식	국가보훈처	2함대사령부(국무총리)
2009. 6. 29	○ 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	국가보훈처	2함대사령부(국무총리)
2010. 6. 29	○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	국가보훈처	전쟁기념관(국무총리)
2011. 6. 29	○ 제2연평해전 9주년 기념식	국가보훈처	2함대사령부(국무총리)
2012. 6. 29	○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	국가보훈처	2함대사령부(대통령)

※ 2013년부터는 해군(2함대)에서 유족, 장병 등 참석한 가운데 자체행사 거행

<제2연평해전 발생 경위>

-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,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, 우리 고속정 참수리-357호정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기습공격을 가해옴으로써 발발
- 교전 중 정장 故 윤희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전사하고, 함교, 조타실 등이 피격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조국과 바다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전투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북한경비정을 격퇴시킨 승리한 해전

□ 천안함 피격

○ 추진배경

- 천안함 재단 및 유족, 천안함용사 추모식 정부행사 요청('11.1월초)
-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BH 및 총리실 보고 ※ VIP 참석 결정('11.3.10.)
- 행사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('11.3.21)

※ 2015.3.26. 정부주관 5회 후 정부행사 종료,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로 통합

○ 추진경과

일 자	내 용	주 관	비 고(주빈)
2011. 1. 20	○ 천안함용사 추모식을 정부주관 추모행사로 거행하기로 결정(유족, 천안함 재단 요구)		국무회의 보고(3.21)
2011. 3. 26	○ 천안함용사 1주기 추모식	국가보훈처	대전현충원(대통령)
2012. 3. 26	○ 천안함용사 2주기 추모식	국가보훈처	대전현충원(국무총리)
2013. 3. 26	○ 천안함용사 3주기 추모식	국가보훈처	대전현충원(대통령)
2014. 3. 26	○ 천안함용사 4주기 추모식	국가보훈처	대전현충원(국무총리)
2015. 3. 26	○ 천안함용사 5주기 추모식	국가보훈처	대전현충원(대통령)

<천안함 피격사건>

-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,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수행 중
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
 - 천안함(PCC-772)은 북서쪽으로 6.7노트 속도로 기동하면서 통상적인 경계
임무를 수행하다 2010년 3월26일 21:22경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.5km
해상에서 피격
-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 전사 및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 순직
 - 3월26일 23:13경 승조원 58명이 최종적으로 구조된 후, 천안함은 침몰 속도가
빨라져 23:50경에는 함정번호인 '772'가 보이는 함수 부분만 수면상
5~7m 가량 보이는 상태로 조류에 의해 동남쪽으로 표류하면서 27일
13:37경 완전히 침몰
-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인양 시점부터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5월 20일
최종 조사결과 발표
 - 모든 관련 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사용 중인
CHT-02D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발표

□ 연평도 포격 도발

○ 추진배경

- 해병대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정부행사 건의('11.8.10)
-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BH 및 총리실 보고
 - 정부행사 추진 결정 * 국무총리 참석 요청('11.9.21)
 - 국무(차관)회의 행사 기본계획 보고('11.11.14)

※ 2015.11.23. 정부주관 5회 후 정부행사 종료,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로 통합

○ 추진경과

일 자	내 용	주 관	비 고(주빈)
2010.11.27	○ 전사자 영결식(해병대장)	해병대사령부	성남국군병원(국무총리)
2011.11.23	○ 제1주기 전사자 추모식	국가보훈처	대전현충원(국무총리)
2012.11.23	○ 제2주기 전사자 추모식	국가보훈처	전쟁기념관(국무총리)
2013.11.23	○ 제3주기 전사자 추모식	국가보훈처	전쟁기념관(국무총리)
2014.11.23	○ 제4주기 전사자 추모식	국가보훈처	전쟁기념관(국무총리)
2015.11.23	○ 제5주기 전사자 추모식	국가보훈처	전쟁기념관(국방부장관)

<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경위>

-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.11.23. 연평부대 K-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¹⁾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 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한 사건임
- 북한의 1,2차 포격에 맞서 우리 연평부대가 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하였고, 북한의 포격으로 우리 해병장병 2명이 전사하고,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, 군부대 공사 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함

⇒ **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해 우리 영토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,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심각한 도발행위**

1) 서북 도서부대에서 전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매달 한번 실시하는 정례적인 훈련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연7되다 재개